

林炳泰 교수와 대학박물관

崔秉鉉*

임병태 선생님은 1936년 11월 9일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장상동에서 부친 相東 선생과 모친 沈粉年 여사의 二男으로 출생하셨다. 선생님은 대구의 명문 사립 계성고등학교를 거쳐 1962년에 숭실대학 사학과, 1964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다. 1968년부터 숭실대학 사학과의 전임교수로 부임하셔서 이후 고고학과 한국고대사를 강의하시면서 제자 양성에 힘쓰셨다. 1977년 禹永邁 여사와 결혼, 슬하에 2남을 두셨으며 1995년 12월 16일 還曆을 맞지 못하시고 급환으로 타계하셨다.

선생님과 대학박물관과의 직접적인 인연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원을 마친 직후 바로 숭실대학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부임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 때의 숭실대학 박물관은 지금의 韓國基督教博物館이 아니라, 선생님의 은사 金良善 교수께서 지금은 없어진 돌집 2층의 한 강의실에 차린 조그만 것이었다. 1967년 필자가 숭실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였을 때, 그 강의실에는 바로 전해 여름 선생님과 김양선교수가 사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발굴한 서울 역삼동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복원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의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김양선 교수가 1948년부터 서울 남산 등지에 설립·운영하여 오던 것을 1967년도에 숭실대학에 기증하여 그해 가을에 막 지어진 채플 아래층에 전시실을 꾸미게 되므로써 개관되었다. 그 때 사학과 학생들은 유물을 나르고 진열장에 배치하는 일 등으로 두 교수를 도왔는데, 유물을 위험하게 들고 다닌다고 김교수가 학생들을 큰 소리로 야단칠 때 임병태 선생님은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학생들을 빤히 쳐다보시는 것으로 야단을 대신하곤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선생님은 1970년 은사 김양선 교수가 타계하자 그의 뒤를 이어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책임을 맡게 되셨다. 그 이후 선생님은 1974년과 1982년 두차례 일본 게이오대학에 유학하실 때, 그리고 학교에서 잠시 잠시 다른 보직에 계실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줄곧 관장의 책임을 맡으셨다.

이와 같이 선생님의 일생은 숭실대학교 박물관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였고, 어쩌보면 선생님의 박물관 인생은 그의 은사 김양선교수에 힘입어 대학박물관 설립자들의 창설 초기

* 숭실대학교 박물관장

애로를 덜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박물관이 개관된지 얼마되지 않아 설립자가 돌아가셨으니 그 큰 박물관의 유지와 운영 책임은 모두 선생님의 몫으로 돌아왔다. 누구나 알듯이 선생님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자신을 크게 밖으로 드러내려 하시지 않는 분이셨다. 박물관도 들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신 분이셨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달리 선생님은 내면의 단호함을 간직한 분이셨다. 그러기에 설립자가 돌아가신 직후 교내외로 봉착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결단하여 한국기독교박물관을 온존시킬 수 있었다.

선생님은 1976년 교문 가까이에 아담한 건물을 새로 지어 한국기독교박물관을 옮겨 개관하였다. 너 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여건이었던 그 시절, 작은 사립대학에서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대학박물관 가운데 최초의 독립건물 박물관을 세우신 선생님의 노고가 어떠하셨을까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선생님은 본교 박물관의 특성에 맞게 古新聞展, 한국고대토기전, 이조민속공예전, 1920년 이전 기독교관계 도서전시회, 한글 필사본 전시회, 서동동유적 출토유물 특별전시회, 독립운동사자료 전시회, 근세 신문·잡지 전시회, 지리·천문도 특별자료전 등을 개최하시어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셨다.

숭실대학교 박물관은 지금 다시 신축건물을 지어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새 박물관은 지금보다 면적도 늘고, 무엇보다도 유물의 전시와 보존환경을 크게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일도 선생님께서 생전에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외형이 갖추어질 때쯤 급환으로 별세하시어 새 박물관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의 주 전공분야는 청동기시대로 고인돌과 무문토기를 주로 연구하셨는데, 선생님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자세는 유적·유물의 끊임없는 실사를 통한 체득을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을 중히 여기셨던 것 같다. 선생님은 겉으로는 정적인 분으로 보이셨지만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이 유적을 찾아 다니셨다. 필자가 대학생 시절 선생님은 사학과 학생들을 이끌고 거의 주말마다 토요일답사라는 이름으로 한강변의 자갈밭이나, 당시는 한적한 시골이었던 지금의 서울 강남일대, 광주 미사리, 수원시 일원 등을 헤매고 다녔던 일이 생각난다. 그 때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나가는 기분으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고고학의 가장 기초조사인 지표조사였다. 선생님은 이와 같이 틈만 나면 한강유역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의 유적을 찾아나셨던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한강변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의 유적을 훤히 꿰뚫고 계셨다.

선생님은 유적 발굴을 고고학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셨다. 필자가 학생 때 발굴조사에 따라갔다가 작업이 하도 고되어 선생님께 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때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고 “수백 수천년 전의 유물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이나”고 하시면서 “유적 발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피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 말씀은 그 후 필자가 유적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늘상 써먹는 훈시가 되었다.

선생님은 서울 역삼동 청동기시대 집자리 발굴을 시작으로 많은 발굴을 이끄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울 암사동 신석기시대 집자리유적,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수원 서둔동유적, 미사리유적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수원 서둔동유적은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 찾아놓은 것으로 197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하다가 토지 소유자측의 문제로 중단되었는데, 여건이 좋아지면 발굴을 재개하시려고 기회를 보아왔으나 결국 마무리를 못하시고 말았다.

선생님은 고고학자료를 일껏 보아 넘기는 일이 없으셨다. 그래서 선생님은 유적 발굴현장에서 있는 형식적인 모임을 싫어하셨지만, 어쩌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시더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남아서 유적의 이 구석 저 구석, 유물의 이모저모, 공반상태 등을 모두 살살히 살피시고야 자리를 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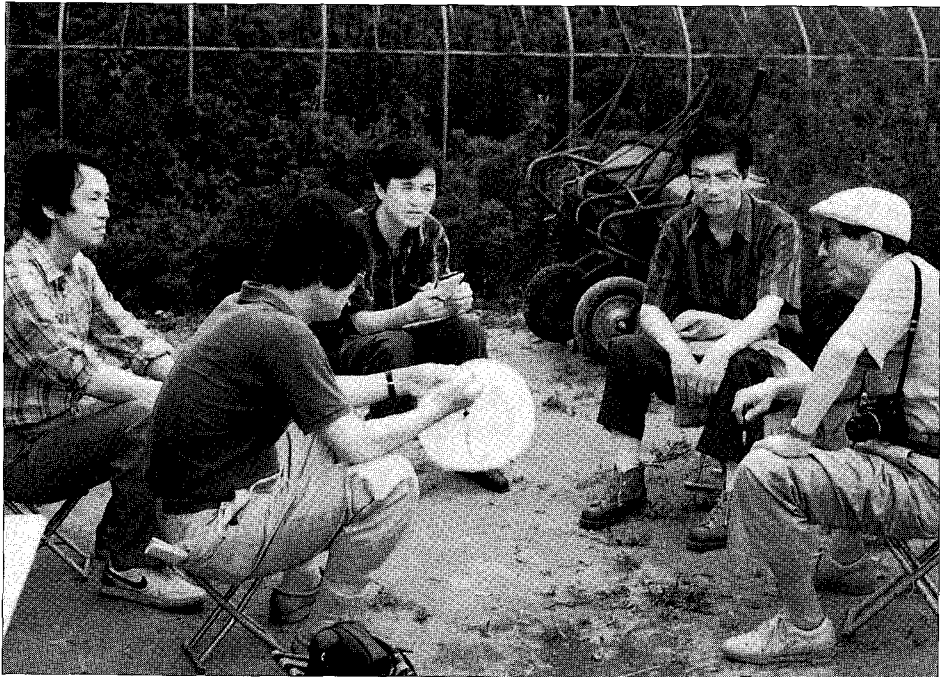
선생님의 유적·유물을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치밀하셔서 대충 훑어보시는 일이 없으셨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여 금방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셨다. 당신이 수없이 만져보고 시일을 두고 생각한 끝에 신중을 신중을 더하여 논문을 쓰셨다. 그래서 다작은 아니셨지만, 선생님의 주 전공분야인 청동기시대의 고인돌과 무문토기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하셨다. 이 논문들이 학계에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선생님의 신중한 학문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돌아가시기 얼마전부터는 학회발표에 나가시거나 논문을 발표하시는 회수가 부쩍 많아지셔서, 그동안 담아두셨던 것을 이제 정리하고 계시구나 하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급환으로 별세하시고 말아 생전에 발표하신 것만 모아 『韓國青銅器文化의 研究』라는 이름의 유저로 남길 수 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당신이 고고학을 전공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고, 한국 학계에서 고고학이 하루 빨리 성장하기를 고대하고 계셨다. 선생님은 “우리 고고학 인구가 빨리 좀 늘어야 될텐데”라는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다. 어쩌다 선생님의 연구실에 가면 책장을 가리키면서 “내가 공부 시작할 땐 우리나라 유적발굴 보고서가 저 작은 책꽂이 한단의 반도 못채웠는데 이제 한 장을 넘어섰어”, 그 다음엔 “이제 두장이 넘어가” 하시면서 대견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1976년 韓國考古學會(당시는 韓國考古學研究會)의 창설에 간여하시고, 이제 비로소 우리도 학문 영역상 독립된 학회를 갖게되었다고 기뻐하시던 모습도 생각난다. 선생님은 성품상 대외활동을 즐겨하시지 않는 분이셨지만 1990년 한국고고학회 회장으로 추대되자 그 일만은 기꺼이 맡으셔서 학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셨었다.

남들 보기에는 조용한 가운데에도 그렇게 당신의 학문과 박물관을 사랑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 눈을 감으셨는지, 이제는 그저 우리에게 유언 무언으로 남겨주신 교훈을 되새기면서 삼가 명복을 빌 뿐이다.



<사진 1> 미사리유적 발굴현장 지도위원회(1988)



<사진 2> 미사리유적 발굴조사현장에서(1992)



<사진 3> 중국 절강성 지석묘 조사(1995)